여성문학의 기원을 함께 되걷다

-서정자 선생님과의 대화

질문

김은하(경희대)

남은혜(한국학중앙연구원)

류진희(성균관대)

장문석(경희대)

기록 및 촬영

김효재(서울대)

이무언(고려대)

목차

1 걱정과 즐거움-대화를 시작하며

2 목포라는 근원

3 학보 기자와 스승-숙명여대 학부 시절

4 '여자가 무엇일까'라는 질문-결혼과 대학원 사이에서

5 1980년대 여성문학 연구의 시작-논문 쓰기, 자료 찾기

6 연구가 딛고 설 수 있는 기반-대학과 학회

7 필요하면 하는 것-여성작가 전집 발간

8 여성문학 연구 되돌아보기 1-김말봉과 지하련

9 여성문학 연구 되돌아보기 2-실증적인 연구

10 여성문학 연구 되돌아보기 3-시대적인 연구

11 마이너 연구자 의식, 지금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까닭

12 다시 살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대화를 마치며

이 인터뷰는 제2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에서 기획한 '한국현대문학의 건설자들'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의 지원을 받았다. 인터뷰의 기획 및 진행에 도움을 주신 한국현대문학자대회 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에 감사드린다. 이 인터뷰는 2025년 1월 30일(금) 13시-17시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과 한국여성문학연구의 역사를 회고해주신 서정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인터뷰를 진행한 후, 질문자와 답변자가 인터뷰 기록을 검토 및 보완하였다. 현장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리하되 의미의 전달을 위해 문장을 다듬었다. 부정확한 표현 및 정보 또한 바로 잡았으며, 답변자가 보충한 상세 정보는 ( )로 표시하였다.

국문요약

이 인터뷰는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형성 및 전개와 관련해 한국여성문학 연구자 서정자의 학술적 실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1980년대 한국 인문학 학술장에서 페미니즘 지식이 성립하는 과정과 나란히, 한국 여성작가의 자료 발굴 및 실증적 연구가 시작되어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토대가 구축되었다. 이 인터뷰는 연구자 서정자의 자료 발굴 및 전집 편찬, 실증주의적 작가 연구의 과정을 살펴본다. 이로써 대학 및 학회라는 토대를 기반으로, 한국 여성문학 연구가 성립되는 과정을 돌아보았다.

국문핵심어: 강경애, 김남조, 김말봉, 김윤식, 나혜석, 목포, 박화성, 숙명여대, 실증주의, 여성문학, 여성작가, 작가전집, 지하련, 한국여성문학사, 한국여성문학학회

1 걱정과 즐거움-인터뷰를 시작하며

질문 오늘 여러 선생님과 함께 서정자 선생님을 인터뷰하는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서정자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은 2025년 2월 12일, 13일 양일간 개최되는 제2회 한국 현대 문학자 대회를 기념하며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문학사 연구의 토대를 닦아 연구의 씨앗불이 되어 주신 원로 학자들을 모셔서 연구자로서의 생애사를 듣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서정자 선생님은 여성문학 연구자라면 모두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는 분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여성문학 연구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여성문학 연구의 호황기를 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서정자 선생님의 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는 거의 부재나 공백의 상태 마찬가지였던 근대 여성문학의 기초를 닦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로서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연구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청해 듣고 또 후학으로서 앞으로 여성문학 연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저 자신 이런 자리에 설 만한 아무것도 없다, 학자로서 부족하다,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청을 해주시니까 왜 좋아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몇 편이나 썼는지 정리하거나 세어본 적이 없어서, 차제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논문이라도 대강 찾아볼 수 있었던 계기를 주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체로 저는 대단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막상 질문지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림 1] 서정자 선생님
(2025년 1월 30일)

그래서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살아온 것을 되짚어 보게 해주신 것이, 제게는 상당한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대략 1년에 논문을 3편 정도 쓴 것 같아요. 항상 자료에 몰려 있었고, 사이사이 수필도 쓰고, 연구서와 작가 전집도 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리해 놓고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박화성이면 박화성, 김말봉이면 김말봉 좀 나눠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날짜가 돼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정리할 것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요?

아무튼 막상 저 자신이 저의 생활을 쓰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쓸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나는 나혜석처럼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인 것은 내가 진작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나혜석 선생이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냈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목포라는 근원

질문 먼저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어떻게 연구에 입문하시게 되었는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42년 목포의 아들 많은 집의 딸로 태어나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시기 전까지 목포에서 성장하신

것으로 압니다. 선생님께서 성장하셨던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은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라는 한국의 역사가 겹쳐 있기도 한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특히 어떤 책들을 읽으면서 성장하셨는지요?

답변 지나 온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말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아들이 넷, 그러니까 오빠가 둘, 남동생이 둘이고, 가운데 딸이 하나로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은 매우 서민적인 분들이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들·딸에 대해서 똑같이 기르신 것 같아요. 자랄 때는 너무나 남자애같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저를 '여자 친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는 좀 남자 같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굉장히 활발한 스타일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고민도 별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고 시절쯤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 속으로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여성이 아니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표면 장력'이 있어요. 그 속으로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좀 여자애답지 않은 아이가 나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긴 했지만, 심각할 것도 없고 열심히 놀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해방기 1948년에 초등학교엘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9월에 학기가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개교기념일이었는지 그랬어요. '암빵(단팥빵)'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웠죠. 엄마를 드렸는지 내가 먹었는지 기억이 없어. 그걸 집으로 가지고 간 기억만 나요. 빵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던 거죠. 또 신기한 거는 학교에서 신문을 내줬어요. 파란색 잉크로 인쇄된 신문을 보니까, 오빠가 장래의 소망이 대통령이래요. 같은 학교 상급생인 우리 오빠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너무 좋은 거야. 신문이 나왔다는 사실과 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해방공간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요즘 말로 멋지게 말하면 인문학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떤 재주가 있으신가 하면 이야기를 참 잘해 주셨어요. 아

버지가 해준 이야기 중 지금도 잊히지 않은 것이, '오성과 한음', '항우와 유방' 이런 대결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 이 방에 무엇으로 가득 채울까 한번 해봐라. 누가 문제를 내니까 항우 같은 사람은 불을 피워 가지고 연기로 꽉 채웠단다. 그런데 유방 같은 사람은 촛불을 하나만 딱 켜니까 방이 금세 가득 차고 따뜻하고 밝고 좋았단다.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계 일주 동화집』[1]에서 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문학 소년이었던가 봐요. 『세계 일주 동화집』을 찾아보니까 도서관에는 없었고, 중앙대 한국학연구소 김근수 씨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중앙대를 떠나신 후 아드님이 어디론가 옮겼는데 빨리 정리가 안 되어서 찾다가 도중하차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수학하셨는데(한의사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 일본어를 하실 수가 있어서 목포로 취업을 하게 돼요. 목포에서 그때 면화(綿花)가 유명했어요. 박화성 소설에도 많이 나오죠. 거기에 취직이 돼서 다니시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두뇌가 우수했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한글을 다 마스터 하시고, 일본어도 조금 하셨어요. 또, 굉장히 배짱 좋고 자부심이 대단해.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어요. 돈을 투자해 농토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토지 개혁이 나서 토지를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6·25를 겪은 후에는 공장을 계속하시면서 5남매를 대학교를 서울로 다 보내기가 쉽지가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그걸 다 해내신 분들이라,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6·25로, 있던 집을 떠나 해안통 작은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공장이 선창가에 있었어요. 집에서는 신문을 안 보니까 박화성 선생의 연재소설 『고개를 넘으면』[2]을 보려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 공장 사무실로 가곤 했습니다. 소설 『구원의 정화』[3]도 열심히 읽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박계주의 소설이더군요.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작은오빠랑 신문도 냈어요. 벽신문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서 그걸 흉내 냈는데 "선 농부가 앉은 신사보다 낫다"라는

1 이정호, 『세계 일주 동화집』, 이문당, 1926.
2 박화성, 『고개를 넘으면』, 『한국일보』, 1955.8.~1956.4.
3 박계주, 『구원의 정화』, 『경향신문』, 1954.3.1.~1954.9.30.

벤저민 프랭클린의 글을 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제가 중학교 겨울방학에 광주 결혼식에 따라갔다가 기관지염에 걸리고 그것이 폐결핵이 되어 2년 동안을 집에서 쉬었어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때 『학원』, 『향학』 이런 잡지도 보았고, 그때 창간된 잡지 『여원』을 매월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정비석의 연재소설 『산유화』가 대단히 인기 있었어요. 학원세계명작전집을 대여점에서 빌려서 『대위의 딸』, 『플루타크 영웅전』 등도 열심히 봤고요. 이광수, 박계주, 김내성의 소설 등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박화성 선생의 단편집도 읽었어요. 오빠가 빌려다 쌓아놓은 영자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프』 잡지들, 미(美)공보원에서 내는 『자유의 벗』 등 그때 본 화보 중심 잡지의 사진이 지금도 잊히지 않고 떠오릅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진 후 어머니한테, "학교엘 보내주세요" 해야 맞는데 저는 안 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것이지요. 그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졸라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보내줄 것 같아서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우리 앞집 이화여대 무용과 교수님이 공연하러 내려오셨다가, 어째서 딸을 고등학교엘 안 보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나중에 딸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학교를 안 보냈냐고 야단을 치시니까 어머니가 적극성을 또 발휘하셔 가지고 학교를 알아봤지요. 학교에 가자, 문예반장이 된 거예요. 글을 써오라고 해서 갖고 가면 그것이 신문에 나오고, 그러다가 국문과를 지망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오빠네 반이 우수 반이라 유일한 남녀공학 반이었는데 (당시는 5학년부터 남자반, 여자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친구 중에 피난 온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서울로 진학했는데, 서울고 신문을 오빠한테 보낸 걸 보니 사르트르·까뮈에 대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안목이 딱 올라가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시시한 거는 다 내 눈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질문 선생님의 글 「아무도 말하지 않은 기억 속의 여인」[4]은 극작가 김우진

4 서정자, 「아무도 말하지 않은 기억 속의 여인」, 『문학의 집 서울 뉴스레터』 제221호,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집-서울, 2020.3.

의 딸 김진길과의 만남을 쓰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고향 목포의 역사,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그곳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과의 이야기 등을 한국문학 연구의 자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논문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5]에서 식민지 근대 도시로서 목포라는 혼종적 공간에서 여성작가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포라는 지역은 선생님의 삶과 연구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변 1914년에 나온 『목포지』[6]라는 책이 있어요. 목포를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니까 재미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포 재판소, 재판소 '마루테기(마루턱)'이라고 이상하게 부르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번화가예요. 그때엔 양쪽 길가에 나무가 우거져 있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언덕에 등이 하나 걸렸더라, 등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걸 신기하게 구경"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굉장히 실감이 나는 거예요.

목포의 땅은 간척지가 대부분이에요. 일제가 도시를 만들면서 이 간척지에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경찰청이나 재판소나 목포역까지 만들어 나갈 때, 전부 다 근대적인 건물을 세워요. 목포에는 기존의 문화가 없어요. 이를테면 그 흔한 향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살던 유달산 아래 동네에만 전통 가옥이 있어요. 김우진 씨가 살던, 그리고 김성규 씨가 사셨던 성취원(成趣園)이라고 성같이 어마어마한 집은 전통 한국 양식에 딱 맞췄죠. 한무숙 씨의 『역사는 흐른다』[7]에 나오는 마나님이 사는 집이 딱 그거예요. 성취원은 그런 집 여러 채가 한 울타리 안에 있었죠. 그 속에 백수재라고 하얀 양옥의 도서관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안엔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학교 교문 같은 문의 입구, 문지기 가족을 위한 집도 양옥 2층으로 지어져 있었어요.

---

5 서정자, 「식민지 근대도시 형성과 목포 유·이민소설-작가 박화성의 사회의식 발아와 그 근원」, 『여성문학연구』 제5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6 목포지편찬회, 『木浦誌』, 木浦誌編纂會, 1914.

7 한무숙, 『역사는 흐른다』(『국제신문』 장편소설 공모, 1948.10), 백양당, 1950.

목포에서 한국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성취원 아래 김우진 선생의 양관 길 건너에 제가 살았어요. 벽돌의 양관 집에 김우진 선생의 따님이 사셨던 것이지요. 박화성 선생님도 일본 유학 중 김국진 씨와 결혼하여 귀국 후 근처에 사셨고,[8] 우리 집을 조금만 내려가면 양관으로 지어진 희곡작가 차범석 선생님 집이에요. 일본 중앙대학 나온, 집안 할아버지 한 분도 아래쪽 집에 사셨는데 6·25 때 희생당하셨어요. 말하자면 목포의 최고 지성인이자 문화인들이 사는 곳에 살았던 거죠. 김우진 선생의 동생 되시는 김철진(『호남평론』 발행인) 씨도 자주 뵈었고요.

목포는 평론가들이 많고요. 김현, 황현산, 김우정, 최일수, 서영채 등 대단한 평론가들이 대략 짚어도 다섯 분이나 되잖아요. 소설가에 박화성 선생을 필두로 이가형 선생, 천승세 선생 등이 있고요, 시인 김지하 선생이 있지요. 최인훈, 김은국 소설가가 목포를 거쳐 가셨고, 희곡작가로 김우진, 차범석 선생이, 수필가로 김진섭, 조희관 선생이 있습니다. 목포는 전국적으로 일본 유학생이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의 하나입니다(나혜석 선생의 부군이 된 김우영 선생도 목포 심상소학교에 와서 일어를 배웁니다). 소영(素影) 박화성 선생의 등장도 바로 이러한 신흥도시 목포의 경제적, 문화적 상승 기류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목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저의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목포를 어떻게든지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박화성 선생만이 아니라 김말봉 선생 연구를 하게 된 것도 김말봉 선생이 목포를 거쳐 가신 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목포와 목포의 작가 연구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 관한 연구가 되는 셈이지요.

3 학보 기자와 스승-숙명여대 학부 시절

질문 선생님께서 숙명여자대학교 국문과에 진학하시게 된 상황과 1960년대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캠퍼스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8 「삼천리 기밀실」, 『삼천리』, 1935.3.10., 23쪽. "여류소설가 朴花城씨는 木浦 茅屋에서 창작의 붓을 열심히 날니고 잇는데 다만 최근에 신경이 몹시 약하여진 까닭에 붓이 전과 가치 奔馬의 勢가 아니된다고."

답변 제가 학교 가는 복이 있어요. 오빠가 특대생 장학금 받은 것을 저 대학 보내는 데 쓰게 해달라고 아버님께 간절히 부탁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대학 진학이 결정되었어요. 아버님이 대학 가는 걸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박화성 같고 김활란 같은 여자가 되어라" 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버님의 꿈이 참 크셨지요? 입시가 코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입시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다시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시험 입학을 택해 '숙대'에 갔지요. 요즘 말로 하면 '수시'로 입학한 거죠.



[그림 2] 대학 시절의 서정자 선생님

질문 숙명여자대학교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대한 기억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딜 가든지 책을 내요. 고등학교 문예부에서 문예반장 하면서 동인지 『송사리』를 냈는데, 현재 목포문예역사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숙대 동창회에 가면 동창회 신문을 내고, 평생교육원에 가서 주부들을 가르치게 되면 『평교문학』(평생교육원 문학)을 만들어 학생들이 쓴 글을 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주부 문학의 내일을 위하여」라는 평론도 썼어요. 제가 또 상당히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선교회를 가면 선교회 기관지를 내는 거예요. 제가 간 데마다 다 책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웃음)

『숙대신보』를 내는 숙대신보사에 한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학년 입학하자 곧 시험에 합격해 견습 기자로 시작해서, 4학년 졸업하고, 또 전임 기자를 거쳐서 편집장 임명을 받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7, 8년 동안, 편집 일을 배운 거죠. 배우다 보면 뭐가 좋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출판사에 가서 판을 짜는데, 이 판을 짠다는 것은 글자를 규격 수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사 늘이고 줄이는 것, 제목 뽑는 것 등 글을 가지고 주무르는 데 대담해져요. 두 번째는, 취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돼요. 취재하고 자료를 모아야 글이 된다는



[그림 3] 『숙대신보』(1964.7.16.)(계엄군사령부 보도처의 검열 도장이 찍혀 있다.)

걸 알게 돼요. 세 번째는, 취재할 때 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김옥길 이대 총장까지 찾아서 원고 청탁을 한 적이 있어요. 글을 써주셨는데 거기에 저와의 만남을 쓰시면서 제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잊히지 않는 기억이죠. 나중에 여원사(女苑社)에 잠깐 있었는데, 구중서 평론가(당시 조사부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함)와 이탄 시인이 근무하고 계셨어요. 한번은 여원사 지프를 타고 전성우 씨 집으로 갔어요. 전성우 씨가 누구냐면 화가 전성우, 전형필 씨라고 유명한 수

집가의 자제분인데, 보화각(간송미술관)이 있는 산 위의 그분 집에 가보게 됐죠. 취재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야를 넓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쓰는 것 정도로 문장력은 별로 안 늘었어요. 나중에 논문 쓸 때 문장력 기르느라고 좀 애도 먹었어요. 김동인 씨에 의하면은 2백 자 원고지 1만 장을 써야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온대요. 대학신문을 만들다 보면 교수님들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한 편을 싣게 돼요. 글을 보는 눈이, 수준이 조금 올라가죠. 또 사람들 이름이 신문에 무수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문에 올라온 이름이 과연 이름값을 제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신문에 이름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다. 허명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 나름으로 그런 결심을 해봤어요. 글을 쓰면서 그때 배운 것을 기억하고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기 위해 노력은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네요.

참, 신문기자 시절에 헤르만 헤세의 전집[9]이라든가 앙드레 지드 전집[1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신문 일에 쫓겨 독서를 많이 못한 것이 후회스럽죠. 그때 읽은 책 중 제일 인상에 남은 것은 신구문화사에서 나온 『세계전후문제작품집』[11]입니다. 당시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 가운데」[12]도 화제였고요.

질문 선생님께서 대학에 다니실 때, 숙명여대에는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나요?

답변 이 질문의 답변을 생각하다 보니,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당시 『가사문학론』[13]을 쓰신 이능우 선생님 외, 곽종원, 강한영, 이을환, 김남조 선생님

9 헤르만 헷세, 『헤르만 헷세 전집』(전5권), 예문관, 1968.
10 앙드레 지드, 『앙드레 지드 전집』(전3권), 휘문출판사, 1966.
11 『세계전후문제작품집』(전 10권), 신구문화사, 1960-1961.
12 루이제 린저, 전혜린 역, 「생의 한 가운데」, 『독일전후문제작품집-세계전후문제작품집 5』, 신구문화사, 1961.
13 이능우,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께서 계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분은 김남조 선생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능우 선생님이세요. 이능우 선생님은 고전문학을 가르치셨는데, 선생님이 쓰신 『국문학개론』[14]이 굉장히 독특해요. 고전문학이어도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이능우 선생님은 모든 걸 자기화해서 글을 쓰세요. '이채우(李採雨)' 라는 필명으로 소설도 쓰셨죠. 베레모를 쓰고 나타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파리에서 비교 문학을 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문을 낼 때 제호 밑에다가 좋은 말 같은 걸 써서 넣었는데 『팡세』를 읽고, 당신이 골라 좋은 문장 원고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씩 넣으슈" 하고 갖다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는 거야.

우리 학교 재직 교수님도 좋으시지만 강사님들이 기라성 같았다고 할 수 있어요. 조연현 선생님이 있었고요, 이기문 선생님 강의는 기똥차요. 백철 선생님은 그분 자신이 문화재니까 참 고마운 생각이 들고요. 흑석동 댁에도 가본 적이 있고, 나중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대학로 문예진흥원 앞에서 있었던 문인장에 혼자 찾아가서 마음으로 인사드리던 생각이 나네요. 다음에 안수길 선생님이 오셨어요. 아마 그때 『북간도』[15]가 나왔을 겁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 강의 같지가 않아, 칠판에다가 몇 글자 써놓고 돌아서서 삐죽 이렇게 그냥 웃으시면 끝이야. 선생님 댁에 가보니까, 그분이 폐가 안 좋으셨는데 그 몸을 가지고, 기차같이 생긴 좁은 방에서 그 소설을 써내셨어요. 굉장히 감동을 주었어요. 강신항 선생님도 강의를 잘하셨습니다. '어여쁜' 소위 시절 이야기를 잘 해주셨죠. 그리고 강의 잘하시는 분이 장덕순 선생님. 그때가 『국문학통론』[16]을 내실 때였어요. 이분은 그냥 강의가 청산유수야. 너무 좋았어요. 수필도 잘 쓰셨고요. 정한모 선생님은 시 강의를 하셨지요.

우리는 '여대생 망국론'이 나올 때의 여대생이었어요. 우리가 정원이 40명인가 5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을 뽑았어. 그러니 대형 강의실에 가야 돼. 선생님들이 오셔서 마이크로 강의를 하시면 뒤에서는 화장 고치고 옆에서는 손톱 깎고, 앞의 몇 명만 강의를 듣는 거야.

---

14 이능우, 『국문학개론』, 이문당, 1955.

15 안수길, 『북간도』(제1부), 춘조사, 1959.

16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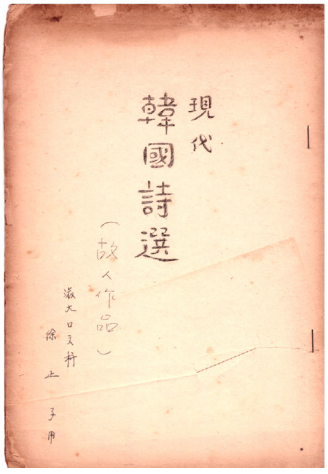
질문 시인 김남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남조 선생님께 대한 기억이 각별하실 텐데요, 김남조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여쭈어봅니다.

답변 김남조 선생님은 여신이죠, 여신. 그때는 한복을 입으셨는데 맵시도 너무 너무 좋으셨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1968년까지는 한복을 입으셨어요. 자료사진을 보니 한국여성문학인회의 기관지 『여류문학』(1968.11)을 낼 그 무렵까지 입으셨고 그후에는 양장을 하셨어요. 김남조 선생님이 한복 입고 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뽕 가죠. 너무 미인이시기 때문에. 손도 그렇게 예뻐요. 집에 가면은 홈드레스를 입으셨는데, 이분은 부엌일 같은 거는 절대 모르고 평생 연탄을 한 번도 안 갈아 보신 분이니까. 다리를 하나 꼬고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으면 그리스 로마의 여신 그 자체예요.



[그림 4] 김남조 선생님(右)과

대학교 1학년 무렵에는 교재가 없었어요. '가리방'이라고 출판부에서 원지에다가 글을 쓴 것이 김남조 선생님 교재 『현대한국시선』이야. 고인(故人) 작품 중심으로 한 것하고 생존 시인을 중심으로 한 것 이렇게 두 권을 갖고 있어요. 김남조 선생님께서 생존 시인 편에 모윤숙 씨를 넣으시고 고인 작품 편에 노천명 씨의 시를 넣으셨어요. 그때 『노천명 전집』[17]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사라고 그러니까 사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종로도서관에 이광수의 『그의 자서전』과 함께 기증했어요.



[그림 5] 교재 『현대한국시선』 고인 작품 편

17 노천명, 『노천명전집』, 천명사, 1960.

김남조 선생님은 김영랑 시를 좋아하셨어요. “가슴엔 듯 눈엔 듯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 있는 곳”(「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내 마음을 아실이…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내 마음을 아실이」) 이런 거라든가. 선생님이 해 주신 말씀 중에 영국의 계관시인 존 키츠(John Keats)가 “모든 시는 음악을 지향한다”라는 문장이 아직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많이 아셔서, 정말 평생을 기다렸다가 만나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하시고는 하셨어요.

김남조 선생님의 좋은 점은, 항상 만나면 밥을 사주시든가, 밥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도 댁에 가면 항상 “밥 먹자.” 하시고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때는 그게 고마운 것인지 별로 몰랐어. 선생님이니까 그런 가보다 하고 무심하게 여겼죠. 그런데 제가 2021년 제1회 목포문학박람회·제15회 소영 박화성문학 페스티벌 준비로 김남조 선생님을 영상 인터뷰를 하려고 갔는데, 그때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연애해라. 사랑해라.” “너 연애하니?” 그게 질문의 다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왔죠. 사랑 시를 쓰는 제자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제자야. ‘선생님 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나중에는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서정자는 생활인이다” 그러셨어.

우리한테 김남조 선생님은 문학의 랜드마크였어요. 청파동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한 번도 청파동을 떠나지 않으셨고, 해외에도 별로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늘 그 자리에서 계셨죠. 선생님이 사시던 집이 ‘예술의 기쁨’이라는 문화 예술 공간이 됐죠. 조각가이신 부군 김세중 선생님도 능력이 있으셨겠지만 김남조 선생님이 살림을 이루셨다고 봐요. 수필을 쓰셔서 베스트셀러를 계속 내시어 가산을 일구시고, 가정의 토대를 탄탄하게 세우신 거예요.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다 잘생기고 예뻐. 인물도 고우시지, 결혼생활도 성공하시고, 자녀도 잘 낳아서 키우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문학적으로도 참으로 열심을 다 하셔서 대시인이 되신 분이시지요. 존경하는 우리의 롤 모델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여자가 무엇일까’라는 질문-결혼과 대학원 사이에서

질문 『여성신문』의 기사 「매주 새 사람 새 사상 만나 기쁘다」[18]에서 전업주부 생활을 통해 여성문제에 공감하시고 “남은 인생을 여성 문학을 통해 여성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데 바치고자 79년 대학원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삶이 녹록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가 ‘여자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다’고 조금씩 생각이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결혼한 다음이에요. 계속 근무할 수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지요. 결혼하고 보니 자기가 그동안에 뭘 했건 상관없이, 집으로 들어가면 모두 아줌마지요. 그런데 구멍가게 가서 두부, 콩나물을 사러갈 때도, 저는 보통 여자들과 어딘지 다른 거예요. 설명이 쉽지 않은데 여성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여성끼리는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이 제게는 부족했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엇일까’ 열심히 탐구를 하다가 대학원을 가게 된 거예요.

결혼했던 것은 주체로 홀로 서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나중에 생각한 것인데 경제적인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내가 밥벌이를 했구나….’ 싶습니다. 저는 결혼생활에서 장남 며느리라는 제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을 첫째로 두고 살았습니다. 오십몇 년 결혼생활을 하고, 남편이 돌아간 뒤 총정리를 해보니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전한 노년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당시로서는 제가 아주 늦게 공부를 시작해 대학원에 진학했잖아요. 강의를 들으러 서울대에 간 김에 정한모 선생님을 찾아봤더니, 서정자는 뭐가 될 줄 알아서 학부 시절에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었는데, 그동안 어디로 쏙 들어가서 소식이 없더니 공부한다고 다 늦게 왔는지 싶으셨나봐요. 선생님 방에는 여름에

18 「매주 새 사람 새 사상 만나 기쁘다」, 『여성신문』, 2004.10.29.

항상 대나무 발이 늘여 있었어요. 발을 들어 올리시고 들어와라 그러시더니 나를 데리고 교수회관으로 가서, 아무 말씀이 없이 웃으시면서 햄버그스테이크를 사주셨어요. '용기를 잃지 말고 해봐라. 그러나 네가 해서 얼마나 하겠니' 하는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시댁이 염전이 있고 태양이 빛나는 곳인데, 한 번은 방학에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시청 앞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탄 채 정한모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그때 선생님의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런데 저는요.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밥만 차리는 게 일이지만 기가 안 죽어. 이 여자는 도대체 기가 죽을 줄을 몰라, 신나게 살았어요. 나는 결혼해서 살림하는 것이 진짜 본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았어요.

저는 여자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여자가 되어가는 중인데, 시댁 식구들하고 너무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시누이들 수가 많았는데, 저를 곧잘 도와줬어요. 시아버님도 저한테 참 잘해 주시고, 어머님도 신여성으로서 "며느리 자랑이 우리 집안 전통이다"라고 하시면서 며느리 흉도 안 보시고 참 잘 해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장남 며느리를 헌신짝으로 알아요. 나는 내가 집안에서 리더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장남 며느리라고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고생이 많으시죠?" 이러는 거야. 고생도 별로 없는데, '이상하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심지어는 동네 모임에서 "9남매의 장남 며느리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다들 가엾게 쳐다보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집에 무슨 손님 청할 일이 있었는지 저를 부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 봬도 내가 신문사에서 기자 15명씩을 데리고 일한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장남 며느리는 형편없구나. 사회적 지위가 이렇구나' 생각했어요.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수 놔서 만든 베갯잇을 두 장도 아니고 한 장 주더라고요. 가져와서 제 베갯잇으로 꽤 오래 썼는데, 그 베개를 볼 적마다 그 체험을 생각했어요. 여성의 계층과 장남 며느리의 지위를 절실히 느껴본 경험이었어요. '이거 참 여자가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나 더 갖게 되었지요.

남편이 대학원에 가라고 권했어요. 결혼생활 중에 고생하는 마누라가 안 돼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즈음 친구 신달자(시인)가 대학원에 갔던 것 같기도 하고, 미국에 유학 떠났던 친구 이경숙(전 숙대 총장)이 돌아와 교수하는 걸 보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딱해 보여서 권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학원엘 가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좋죠. 뒤도 안 돌아보고 학교에 가서 원서를 냈어요. 저는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꿈도 안 꾸었어요. 교수가 되려고 했으면 공부하지 못했겠죠. 대학원생이 정원이 안 차니까, 석사과정 입학은 학부 성적으로 뽑았어요. 박사과정은 시험을 보긴 봤는데, 독일어는 턱걸이로 되고 전공과목은 어지간하면 점수 주는데 영어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랬는데 박사도 TO가 너무 많이 비었으니까 우선 들어와서 다시 시험을 보라고 조건부로 박사과정을 가게 됐어요. 저는 평생 입학시험 어렵게 치른 적이 없습니다.

질문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 채훈 선생님께 지도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석사과정에 들어가니 전공과 지도교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를 잘 몰랐고. 이능우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고전문학 전공이신 이능우 선생님이 제일 마땅할 것 같았어요. 이능우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고전문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선생님께서는 요즘은 현대문학을 하는 것이 더 쓸모가 있을 것 같다고,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게 낫다. 고전문학은 당최 뭐 팔리지를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문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대소설을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채훈 선생님이 현대소설 담당이고 이인복 선생님도 현대소설이나 비평을 담당하셨어. 김남조 선생님은 "저기 왔냐, 너는 박화성 연구를 해라" 그러셔서, "네, 선생님"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도교수는 누구를 했냐?" 물으셨어. "선생님, 소설이니까 채훈 선생님이 지도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김남조 선생님은 먼저 내가 당신을 지도교수로 할 걸로 생각하셔서 화가 나셨어요. 너무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야, 그때가 1979년 무렵이에요.

제가 나중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김남조 선생님이 한국여성문학인회 만들 때도 주역이 되시고,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여성문학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또

한 심포지엄을 열어서 김윤식 선생님께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신 분이셨어요. 김윤식 선생님의 논문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19]은 여성작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에요. 김남조 선생님은 당신 나름으로 여성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성문학 강의를 개설하셨고, 제자들에게 학위논문을 쓰게도 하신 거지요. 당신 나름으로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 내가 소설을 전공한다고 새로 온 교수한테 간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질문 대학원 시절에 어떤 선생님들께 배우셨고,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문학 속 타자의 복원과 젠더』[20]의 머리말에는 석·박사 과정에서 김윤식, 이재선, 신동욱, 김현, 전광용, 정한모 선생님께 석사 및 박사과정의 강의를 수강하셨다고 기록하셨어요.

답변 대학원 시절에는 기존 교수진에 채훈 선생님이 보태졌어요. 전임교수로 이능우, 김남조, 채훈, 이을환, 이인복. 이렇게 계셨어요. 곽종원 선생님이랑 강한영 선생님이 안 계셨죠. 1960년대 이방자 여사가 귀국하면서, 이방자 여사가 이왕직 재산으로 된 숙명학원의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창회에서 반대하고 숙대 교수들도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걸 숙대 분규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곽종원 선생님하고 강한영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학생회 임원이었을 땐데, 선생님이 떠나셔서 너무 죄송한 거야. 학생회 임원이면 하나로 뭉쳐야지, '나는 아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규는 또 간단하지가 않고 아주 복잡해요. 재판도 오래 걸리고, 아주 시끄럽고 창피하고 굉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임교수가 바뀌게 된 겁니다.

숙대 대학원은 자기가 원하면 강의 신청을 어느 분에게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김현 선생님은 전공이 불문학인데 김현 선생님을 매우 존경하는 후배가 문예

19 김윤식, 「여성과 문학-을유해방 전까지의 한국신문학에 있어서」, 『아세아여성연구』 제7호,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68.(심포지엄 사회: 김남조, 토론: 이어령); 김윤식,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 『한국문학사논고』, 법문사, 1973.

20 서정자, 『우리 문학 속 타자의 복원과 젠더』, 푸른사상,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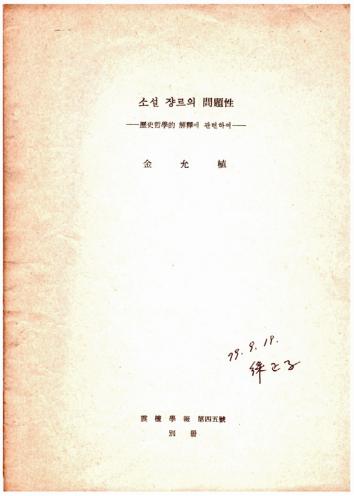
사조사를 그분께 듣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동갑이고 또 아니까, 좋기도 했지만 저 자신이 실력이 없으니 크게 기대도 하진 않았어요. 집에만 있어서 운동 부족인 저는 서울대 인문대 건물 3층까지 걸어 올라가자면 숨이 차서, 한동안 밖에 서 있다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김현 선생의 연구실 문에는 본명 '김광남'이 쓰여있었고, 연구실에는 국방색 야전침대가 한쪽에 놓여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석사과정 강의여서 고전, 현대문학과 언어학 전공자들이 함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 제가 "선생님『산문시대』와 평론집『존재와 언어』[21] 갖고 있어요" 하니까 "저도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하며 웃으시던 것이 생각나네요.

석사과정 시작하며 김현 선생의『한국문학의 위상』[22]으로 당시의 한국문학의 윤곽을 파악했고, 그 책은 끝까지 읽은 첫 전공 서적이기도 했습니다. 책에 써 둔 사인을 보면 "1979.3.4. 서정자"라고 되어 있어요. '해남 물고구마를 먹으며 책을 읽었다'는 대목이 첫 장에 나와서 접근이 더 쉬웠고 재미있었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은 학부 시절 잡지『여상』에서 새해를 맞는 글을 써 달라 청탁해서 글을 썼는데, 하필 '현에게' 쓰는 글로 썼던가 봐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후에 김현 선생이 그 '현'이 자기 아니냐고 놀려서, 되레 제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글 마지막에 새해 첫날 아침 유달산 일등 바위에서 만나자고 글을 마쳤는데 우연의 일치였지요.

종강할 때 선생님이 가시는 그 유명한 구반포의 통닭집에 데리고 가셨던 생각이 나고, 또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가슴이 아팠어요. 여성문학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려고 한다니까 선생님께서 제게 "화끈하게 쓰세요"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잊히지 않아요. 박사논문 받으시고 축하 편지도 주셨는데 지금도 가끔 '화끈하게' 쓰는 게 무얼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대학원에서 만난 선생님 중에 김윤식 선생님 강의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첫 마디가 딱, "비평에는 '신비평'만 있는 것이 아니다"였어요. 이분이 석사논문을 신비평으로 쓰셨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21 김현,『존재와 언어』, 가림출판사, 1964.
22 김현,『한국문학의 위상』, 문학과지성사, 1977.



[그림 6] 대학원 교재
「소설 장르의 문제성」
(서정자 선생님은 1979년 9월
19일로 날짜를 써두었다.)

때는 루카치 연구에 집중하고 계실 때였어요. 교재로 주신 것이 『진단학보』 제45호 논문 별책 「소설 장르의 문제성-역사철학적 해석에 관련하여」[23]였어요. 제가 날짜를 써놨는데 "1979.9.19"이더군요. 루카치나 여러 이론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윤식 선생님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글이 너무 재미있기도 해서, 선생님 책이 나오면 빠짐없이 봤어요. 나중에 박사를 마친 뒤에는 좀 덜 봤던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요. 하지만 작가 연구는 다 봤죠. 김윤식 선생님께서 문학 연구는 궁극적으로 작가론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2015년 한국현대문학관에서 '김윤식 저서 특별전'을 할 때도 가봤고, 이번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전시회 '혼신의 글쓰기-김윤식의 한국현대문학사'에 갔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 200권 넘게 책을 정말 많이 쓰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윤대석 선생이 수유너머 강의를 녹음한 것을 정리한 『한국문학사의 두 공간, 세 가지 글쓰기』[24]를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김윤식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학문에 그렇게 즐거움을 못 느꼈을 거예요.

한 번은 박사과정 때인가 강의를 받으러 선생님 방에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같이 듣는 그 박사과정 애들이 아무도 안 나오고 저 혼자 나왔어요. 그러면 눈치를 보고 알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딱 앉아 있는 거야. 선생님은 시간 딱 되면 강의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 딱 채워. 강의 다 하시고 "이상입니다. 끝!" 그러고 가시고……. 그래서 혼자 강의를 듣는 영광을 누려봤어요. 한 번은 선생님

23 김윤식, 「소설 장르의 문제성-역사철학적 해석에 관련하여」, 『진단학보』 제45호, 진단학회, 1978.

24 김윤식, 윤대석 편, 『한국문학사의 두 공간, 세 가지 글쓰기』, 소명출판, 2024.

방 손잡이가 고장이 났어요. 학교에서 고치는 사람을 오라 하면 될 텐데, 당신이 그거를 고치려고 해보는 거야. 제가 한번 몇 번이나 하시나 세어봤어요. 스무 번도 더 하시더라고요. 정말 끈기가 대단하시구나, 그걸 알았고요.

선생님과의 귀중한 일화가 제게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서 제일 처음 쓴 논문이 강경애였어요.[25] 박화성을 썼으니까, 강경애를 한 번 보자 하고 썼어요. 당시에는 강경애에 대한 글이 별로 없어서 김윤식 선생님의 「여성과 문학」과 이규희 선생 논문[26]을 참고하면서 썼지요. 그때가 아마 이상경 씨가 석사논문 강경애론[27]을 쓰신 때였을 거예요. 그날 우리 세 명인가가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끄덕끄덕 들어가서 선생님 방의 소파에 가서 앉았어요. 사실 제 강경애 논문은 좋은 논문집이 아니라 내가 초대 원우회장이 되어서 창간한 논문집 『원우논총』에 낸 거예요. 그런데 김윤식 선생님이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너 강경애론을 잘못 썼다'라고 나한테 진지하게 야단을 치시는 거야. 김윤식 선생님도 처음에 그렇게 보시긴 했는데, 양주동의 주장에 따라 강경애를 절충주의로 본 글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야단이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이 대단한 학자가 이렇게 내게 정면으로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우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거짓말을 좀 보태서 30분을 따지시더라니까. 1999년에 용정에 강경애 문학비를 세울 때 저도 갔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김윤식 선생님이 데리고 가신 거야.[28] 거기 갔다 오셔서 사진 두 장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무슨 일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에 "강경애, 그 문학비가 산 중턱에 세운 것이 혹시라도 흘러내릴까, 걱정이요" 그렇게 쓰셨어요. 선생님은 나를 사람으로 보신 거지. 아따, 참 영광스럽데요. 김윤식 선생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나는 김윤식 선생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규장각 전시회를 보면서 진

25 서정자, 「강경애연구-새로운 평가를 위한 시고」, 『원우논총』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983. 당시 연구자들은 강경애의 소설이 변개(變改)된 텍스트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6 이규희, 「강경애론-빛과 어둠의 절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27 이상경, 「강경애 연구-작가의 현실인식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28 김윤식, 「강경애의 시비, 안수길의 소설, 혹은 윤동주의 우물, 송몽규의 무덤」, 『김윤식 문학기행-머나먼 울림, 선연한 헛것』, 문학사상사, 2001.

짜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어서, 전시를 보다가 시간이 돼서 나왔지요.

5 1980년대 여성문학 연구의 시작-논문 쓰기, 자료 찾기

질문 선생님께서는 1980년에 「박화성론」으로 석사학위를, 1987년에는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29] 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어떤 글을 쓰시면서 국문학 연구자로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여기 나오려고 내가 석사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네. 너무 창피한 석사논문을 썼기 때문에 뭐라고 변명을 좀 해야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웃음) 처음 쓰는 논문이라 그걸 쓰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문고리를 잡고 문짝을 잡고 기둥을 잡고 정말 몸부림을 하면서 쓴 거예요. 누구를 제일 원망을 했냐? 김윤식 선생님. 김윤식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창작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30]에도 1930년대 창작방법론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논문이나 학위논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물어볼 사람이 김윤식 선생님밖에 안 계시는데, 김윤식 선생님은 그때 재팬파운데이션 기금으로 『이광수와 그의 시대』[31]를 연구하시러 도쿄대학으로 가시고 안 계신 거야. 물어볼 데가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 김윤식 선생님의 연구를 찾아 수십 번을 읽고 내 나름대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고, 박화성 문학에다 적용해서 써서 냈어. 죽을둥 살둥 해서 석사논문을 다 마쳐 놓으니까는 선생님이 그때 일본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 마침 택시 타고 선생님이 숙대 앞을 지나가시고 나는 걸어서 내려가는데, 택시 속에서 선생님이 나를 알아보신 거야. 잘 웃지도 않으시는 분이 나를 보고 웃으시면서 손까지 들어주시더라고. 얼마

29 서정자, 「박화성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 여류소설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30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한얼문고, 1973.

3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전3권), 한길사, 1986.

나 영광스러운지 몰랐었어.

심사를 하는데, 지도교수 채훈 선생님은 사정이 생기셔서 참석을 안 하셨어. 신동욱 교수하고 박철희 교수하고 김남조 선생님 세 분이 심사를 하셨고요. 김남조 선생님께서 문장 이게 뭐냐 막 이러시면서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를 해 주시려나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도 패스는 됐는데……. 그날 제가 차로 신동욱 선생님을 댁으로 모시면서 가는데 김남조 선생님하고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서 선생은 문장에 힘이 있으니까 연세대로 오십시오"라고. 너무 용기를 얻었지만, "선생님, 박사는요 무슨, 석사과정도 겨우 간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박사를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김남조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하면, 스물몇 살 대학 졸업한 학생들도, 대학원에서 연구하겠다고 해 지도하면 석사논문을 내놓고 달아나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쳐봐야 계속 안 하는데, 더구나 나는 나이가 마흔이 다 돼 가지고 늦게 공부한다고 왔어. 제게 별로 믿음이 안 가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석사학위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님이 "그 나이에 공부를 하겠냐" 그러셨죠. 그래서 "살림에는 자신이 없지만 공부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했는데, 막상 석사 논문을 쓰는 데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박사학위를 마친 후 초당대 교수로 재직할 때인데, 한국여성문학인회(회장 추은희 시인) 주최 '제1회 작고문인 재조명 세미나'(1996.9.)가 박화성 작가를 주제로 목포에서 열렸어요. 서울에서 여성 문인 수십 명이 기차 한 칸을 대절해서 내려와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박화성 문학에 대한 주제 발표를 이명재 교수와 제가 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김남조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 손을 잡으시고 "우리 숙대에도 학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엄청나게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전숙희 선생님도 그렇게 감격해 하시더니, 서울에서 저를 불러서 이경희 선생과 함께 신라호텔로 가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박사할 꿈도 안 꾸고, 그때 '동아문화센터' 소설반을 다니고 있었어요. 강의에서 김동리, 박완서, 이병주, 최일남 이렇게 일류 선생님들을 만나고 소설 창작 공부를 했어요. 동아문화센터 소설반 1회야. 그때 강의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우리를 집으로 다 초청해서 데리고 가. 이병주 선생님 댁에도 가봤죠. 만

권의 서적이 있다는 이병주 선생님 서재도 봤어요. 김동리 선생님의 신당동 댁도 가서 설이면 떡국도 얻어먹었고요. 또 최일남 선생님 댁도 가고. 훌륭한 소설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서영은 선생이 초대했을 때 김동리 선생님이 이름을 봐주시는데, '서정자' 어떻게 쓰나 물으셔. 한자로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름이 좋다고 그러세요. 그 이름 가지고 계속 하라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하루는 채훈 선생님께서 부르셔서 "박사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실력이 없어서 못 하겠어요" 하니, "뭐, 하면 할 수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채훈 선생님께서는요, 절대 무리한 것을 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태기도 안 하시고 빼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거야. 권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채훈 선생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그러고 박사과정으로 들어갔어요. 채훈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는데 첫째, 실증주의를 중요하게 보셨어요. 이분은 철저히 실증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작가론 연구에서는 작가가 하지 않은 말을 논문에 쓰지 말라고까지 하셨어요. 둘째, 평론하지 마라. 지나고 보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론에는 한계가 있어요. 각주가 없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베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글들이 적지 않더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인복 교수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비평이란 명명(命名)이다", 즉 이름 짓는 게 기본이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명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읽을 수밖에 없죠. 그게 논문 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선 서강대 교수님이 대학원 강의에서 서구 페미니즘 문학 이론 지도를 많이 해 주셨어요. 나중에 1990년『현대문학』8월호 권두 정담「한국문학과 페미니즘」에 이재선 교수님과 김경수 교수, 저, 세 사람이 함께 출연한 적이 있어요.[32] 이때 이재선 선생님이 "이것으로 평론 등단입니다" 하셨는데, 그래도 저를 자신 있게 '문학평론가'라고 내세우지 못했고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연세대 신동욱 교수님이『현대문학』주간이실 때,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뒤에『현대문학』에「박화성의 문학세계」를 싣게 해주셨어요.[33] 그

32 이재선·김경수·서정자,「한국문학과 페미니즘」,『현대문학』, 통권 428호, 현대문학 편집부, 1990.8.

리고 서울대 조남현 교수님이 계간 『소설과 사상』의 주간으로 계시면서 특집 '여성소설의 어제와 오늘'(1996년 여름호) 필자로 김미현(「주변에서 쓰기, 중심에서 읽기」), 서경석(「여성문학에서 한국문학으로」), 김경수(「성적 정체성의 자각에서 한국문학으로」) 세 사람과 함께 저를 끼워주셨습니다.[34] 세 분 선생님의 은혜로 유수의 문학지에 평론 필자로 참여함으로써 문학평론가의 말석이나마 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여성문학 연구 1세대로서 한국문학에서는 '유령'이나 마찬가지인 여성작가를 찾아내 이들의 연보와 작품을 밝히는 데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선생님이 여성문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된 개인적인 이유나, 당시의 학계나 사회의 분위기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나는 이른바 '만들어진 여자'였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도 여성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성 소설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문학사에 여성작가들이 누가 나오나 찾아보니까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35]에 여성작가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백철, 김우종, 조연현, 이재선 등의 사조사나 소설사 형태의 문학사에서도 여성작가들은 따로 논하거나 여성작가의 작품세계를 빈약한 한두 줄의 언급으로 그쳤습니다. 그야말로 여성작가들은 황무지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작가의 작품을 찾아 한국문학사에 남녀 작가가 편견 없이 언급되도록 해야겠다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한국문학사가 쓰이기 위해서는 여성작가와 작품 연구가 실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여성문학 연구를 전공하는 데 저항은 당연히 있었죠. 문학에서 남성문학, 여성문학이 어디 있느냐, 여성문학을 전공하는 건 넌센스라고 말리는 교수

33 서정자, 「박화성의 문학세계」, 『현대문학』, 현대문학 편집부, 1988.3.
34 서정자, 「페미니스트 의식의 침체와 환상적 사랑의 병렬」, 『소설과사상』, 고려원, 1996.여름.
35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님이 있으셨어요. 다행히 지도교수 채훈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고요. 김남조 선생님과 채훈 선생님 두 분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성작가의 문학 연구는 작품 연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 문학 이론을 참고하면서, 김윤식 선생님이 쓰신 「인형의식의 파멸-여성과 문학」과 백철의 『신문학사조사』[36]와 이재선 교수의 『한국현대소설사』[37]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죠.

첫 작업이 작품 연보 만들기와 작품 구하기가 되는 건데요, 초기에 주로 자료 도움을 받은 곳은 중앙대에 있는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낸 『한국잡지 및 호별 목차집』[38]이 있었어요. 발행인은 백철 선생님이고 고려대(중앙도서관 및 아세아문제연구소), 국립도서관, 서울대, 연대, 김윤경, 김근수, 백순재, 원광대, 한국연구원 등 다양한 곳에 소장된 잡지 목차를 총망라하여 낸 목차집입니다. 이 목차집이 정말 훌륭했고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앙대 한국학연구소에는 김근수 씨가 늘 계셨고, 자료를 신청하면 인쇄처럼 깔끔하게 복사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숙대, 연대, 이대, 한양대 등 서울과 지역의 대학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 시립도서관, 아단문고, 도쿄의 국회도서관, 뉴욕의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등 자료를 찾아 어지간히 헤맸습니다. 당연히 교보문고, 종로서적 같은 서점도 수시로 들렀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은 새로 나온 여성 문인의 책을 뽑아 책장을 넘기며 보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다가와 취조(?)를 하는 겁니다. 소위 당시에 인기있는 여성 문인의 책이었는데 그 책을 왜 보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즈음은 여성 문인의 수필집 등이 잘 팔렸는데, 평단에서 여공들이 독자라고 몰아붙이던 시기였어요. 그 남성은 여공 느낌의 중년여성이 여성 문인의 책을 사는 현장을 잡았다는 얼굴이었죠. 그 남성의 질문에서 여성 문인에 대한 비호감과 적의를 느꼈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 남성의 얼굴을 기억했고 그가 나중에 인기 시인이 되는 걸 보았어요.

---

36 백철, 『신문학사조사』 상권, 수선사, 1947; 『신문학사조사』 하권, 백양당, 1949.

3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38 『한국잡지 및 호별 목차집』(한국학 자료총서 제1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3.

작가와 작품을 찾으러 정말 소 갈 데 말 갈 데 다 돌아다녔는데, 정말 기뻤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강경애의 작품 「그 여자」[39]는 강경애 문학의 흐름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강경애 의식에 전환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삼천리』 그 호수가 없는 거야. 수소문을 하다가 통일교 쪽에 『삼천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안내를 받아 창고에 들어가니까 책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막 쌓여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벼룩한테 다 뜯기면서 「그 여자」를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났어. 그걸 찾아와서 읽어보니까 강경애의 의식 전환 작품이 딱 맞는 거예요.

여성 문학 쪽은 연구가 뒤처져 있지만, 1980년을 전후하여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강의를 먼저 시작했어요. 사실 숙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설립이 더 빨랐지만, 페미니즘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화여대가 여성학의 제도화에 앞장을 서게 된 겁니다.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진보적인 학문인 페미니즘을 쉽게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수용해야 할 여성해방 사상, 페미니즘을 왜 여자 대학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페미니즘이 진보적인 이론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해야될 일이 안 돼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죠.

또 하나가 1984년 10월 6일 한국여성학회 창립(이대 경영관 1층 홀)이었어요. 다음 해 1985년 6월 8일에서 9일까지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유교·기독교·불교의 여성관 재조명'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여성학』을 창간합니다. 조한혜정 교수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셨을 때예요. 윤후정 이대 법정대 학장님 오셨고요. 숙대에서도 참여했습니다. 그즈음 숙대도 여성학 강의가 있었고, 제가 그 강의를 맡고 있었거든요. 팀티칭이라고 상당히 전위적인 강의방식이었습니다.

그 뒤로 세미나 할 때인가 성신여대 박용옥 선생님을 만났어요. 박용옥 선생님께서 제가 여성문학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제 옆에 오셔서 같이 걸어가는 길에 "『여자계』를 찾아보세요. 『여자계』를 보시면 보실 게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걸 귀에 딱 담아 놨죠. 그후 『여자계』를 찾았고, 나혜석의 「경희」[40]를

39 강경애, 「그 여자」, 『삼천리』, 1932.9.

찾았어요. 너무너무 신나. 나혜석의 「경희」를 찾아 읽어볼 때의 기쁨이라는 거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니즘 문학을 찾았구나. 그것도 이광수의 『무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쓰인……. 너무너무 신났던 것이 기억나고…….

2008년 일본의 니가타현립대(新潟県立大学) 명예교수 하타노 세츠코(波田野節子) 선생이 초대 주최한 세미나[41]에서 최원식 선생님,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선생님, 한국 및 일본의 여러 한국문학 연구자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를 처음 만난 최원식 선생님이 "나혜석의 「경희」 발굴하신 분인가요?" 묻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창비의 『20세기 한국소설』 제1권[42]에 나혜석의 소설 「경희」가 이광수, 현상윤, 양건식, 김동인의 작품과 함께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에 나온 이 책은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1910년대 여성작가의 작품을 배제하지 않고 문학 정전으로 수록한 최초의 '사건'일 겁니다. 우리 한국문학사를 남성 위주의 문학사가 아니라 남녀평등의 시각에서 쓰일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박사논문 쓰면서 신문잡지 이런 것을 가능한 대로 전부 뒤졌어요. 다행히 그즈음 신문과 잡지 영인본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왔고, 영인본을 할부로 사서 전부 뒤지다가 일제강점기 신소설부터 이미 페미니즘이 수입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당시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여성문제와 노동문제라는 말을 일제강점기의 잡지마다 평론가들이 부르짖고 있었고, 엘렌 케이 사상, 노라이즘 등 자유주의 페미니즘, 콜론타이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페미니즘이 수입 소개되어 우리 여성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제 박사논문은 우리 근대 여성문학이 페미니즘 문학이라는 것을 처음 밝혀낸 데 그 의의의 일단이 있을 겁니다. 실증주의 작업에서 이런 열매를 맺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문화』 제3호[43] 특집 〈여성해방의 문학〉에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학자들이 고정희, 김숙희, 박완서, 엄인희, 조혜

40 나혜석, 「경희」, 『여자계』, 1918.3.

41 波田野節子·熊木勉·山田佳子·申銀珠·沈元燮·渡辺直紀, 『植民地期朝鮮文学者の日本体験に関する総合的研究(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報告書)』, 青雲社, 2009.

42 나혜석, 「경희」, 『20세기 한국소설 1』, 창비, 2005.

43 또하나의문화 동인 편, 『또 하나의 문화 제3호-여성해방의 문학』, 평민사, 1987.

"近代 첫 女流作家" 羅蕙錫 화가

국문학자 徐正子씨, 「羅蕙錫文學」 재조명

1918年 발표된 「경희」등 2편 公開
"金明淳·金一葉보다 수준 越等" 주장

羅蕙錫은 흔히 韓國 최초의 여류화가로 끝혀 왔다。

또한 그의 화려한 애정행각과 비극적인 생애도 널리 알려졌다。그러나 소설가로서의 羅蕙錫에 대한 평가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바 없는데 국문학자 徐正子씨(45·숙명여대강사)가 羅蕙錫의 문학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했다。

羅蕙錫은 생전에 6편의 소설을 썼다。그중 1926년에 발표된 「怨恨」과 「玄淑」2편만 그 내용이 알려지고 나머지는 제목만 전해져 왔다。

徐씨는 1918년 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의 회지 「女子界」에 발표된 羅蕙錫의 소설 「경희」와 「回生한 孫女에게」를 최근 찾아내고 그 내용을 분석한 끝에 『李光洙의 초기단편에 못지 않는 1910년대 한국근대소설 형성기의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한국여류작가는 羅蕙錫』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새로 발굴된 소설 「경희」는 국내 첫 여성해방 소설로 근대적 단편소설의 구성요건인 발단·전개·위기·절정·대단원의 5단구성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당시 단편소설이 대체로 원고지 20장 안팎이었던데 비해 이 소설은 1백25장 길이의 力作이며 냉정한 객관성을 유지한 3인칭 서술형식으로 이루어졌다。동경유학생인 주인공이 여성蔑視의 인습과 가부장제 억압에 맞서 어떻게 자아각성과 확립에 이르는지를 주인공의 내적 고뇌및 제3자의 시각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근대여성문학으로 꼽히는 金明淳의 「의심의 소녀」가 「청춘」誌에 발표된것은 1917년 11월이다。「경희」는 이 소설보다 4개월후에 발표됐으나 나중 표절혐의를 받게된 「의심의 소녀」에 비해 훨씬 탄탄한 구성과 재미를 지니고 있다고 徐씨는 주장했다。능숙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소설가적 재능을 당시 작가로서 명성을 날린 金明淳이나 金一葉보다 羅蕙錫이 더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回生한 孫女에게」는 원고지 25장 분량의 서간체소설이다。위장병에 결렸다가 나은 손녀에게 보내는 할머니의 편지형식으로 쓰여져 있다。온갖 약으로도 안낫던 위장병이 깨끗이·고추장을 먹고 나았다는 손녀에게 할머니가 『너는 영원히 깨두기의 딸』이라고 한 구절을 들어 徐씨는 이 작품이 민족의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羅蕙錫은 이 소설 발표 몇달후 3·1운동과 관련돼 옥고를 치렀다。그러나 당시 여성작가들의 작품엔 민족의식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우리 근대문학사에 신체소설이 등장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며 李光洙의 「어린 벗에게」가 그 전단계 작품으로 얘기되는 반면 1918년에 羅蕙錫이 서간체 소설을 썼다는 것은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는것이 徐씨의 주장이다。

徐씨는 지금까지 羅蕙錫 연구가 그의 작품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탓에 羅蕙錫의 문학적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日帝강점기 한국여류소설 연구」로 올봄 숙명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우리 문학사에서 꼭 기억되어야 할 작품들이 여성 작가의 작품이란 이유로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羅蕙錫에 대한 그의 연구결과는 7일 쏘山 극동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문학연구회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羅蕙錫연구-191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다。

〈任英淑기자〉



羅蕙錫의 자화상。화가로 잘알려진 그녀의 1918년대 소설 두편 「경희」와 「回生한 孫女에게」가 공개돼 문학인으로서의 그녀를 재조명하는 논문이 7일 부산서 발표된다。



徐正子씨

[그림 7] 나혜석의 「경희」 발굴을 소개한 『서울신문』 기사(1988.7.7.)

정, 정진경 등 여성 문인들과 좌담하면서, 페미니즘 문학을 '소개'하고 페미니즘 글쓰기를 당부하고 있었어요. 우리 근대 여성작가들은 이미 페미니즘 문학을 이루어 놓았는데 말이지요.

나혜석의 「경희」와 강경애의 「그 여자」 두 작품을 새로 발굴했지만, 나는 논문 쓰는 게 재미있지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아직 못할 때예요. 그런데 김경수 씨가 먼저 제의를 받으셨나 봐요. 갑인출판사에서 『한국여성소설선』을 내는데, 내가 근대편을 엮고 김경수 씨가 현대편을 엮는 것으로. 그래서 얼씨구 좋다 하고 책을 만들었어요.[44] 나혜석의 「경희」와 강경애의 「그 여자」가 책에 실린 거예요. 최초였지요. 그리고 해설을 써서 뒤에 붙였어요. 원고료는 받았지만 저작권이 없어서, 나는 몇 부가 팔렸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은 이화여대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손을 높이 치켜들며 "엄마, 우리 학교 서점에 갔더니 엄마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 하더군요. 여성학 교재로 쓰인 걸 거예요. 숙대 앞 숙명서림에서도 많이 나갔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종로서적에서 내는 독서정보지 계간 『종로서적』에서 이 책이 잘 팔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근대 여성작가 소개를 연재해달라는 청탁이 왔어요. 『종로서적』의 「한국의 인물-여성작가」 1~7편으로 김명순, 나혜석, 박화성, 백신애, 이선희, 지하련, 임순득 일곱 작가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만 강경애를 빼먹었어요.[45] 강경애 연구는 상당히 열심히 한 셈이었는데 깜빡했어요. 나는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청탁 온 글은 다 씁니다. 그리고 신문기자 기질인지 청탁이 와야 글을 쓰는 버릇도 좀 있어요. 또 마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쓰게 돼요. 죽더라도 마감을 맞추는 거죠.

---

44 서정자 편, 『한국여성소설선 1-1910~1950』, 갑인출판사, 1991; 김경수 편, 『한국여성소설선 2-1951~1990』, 갑인출판사, 1991.

45 서정자, 「그가 갈망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었다-오해 속에 잊혀져간 여성 문인 김명순」, 『종로서적』, 1991.여름; 서정자,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다간 페미니스트, 나혜석」, 『종로서적』, 1991.가을; 서정자, 「눈보라의 운하를 헤쳐간 '백화'의 작가, 박화성」, 『종로서적』, 1991.겨울; 서정자, 「운동으로 문학으로 여성억압의 현실을 고발한 백신애」, 『종로서적』, 1992.봄; 서정자, 「여인도(女人都)를 꿈꾸던 페미니스트, 이선희」, 『종로서적』, 1992.여름; 서정자, 「암흑기 문학사를 비춘 섬세하고 예리한 언어의 마술사, 지하련」, 『종로서적』, 1992.가을; 서정자,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비평가 임순득」, 『종로서적』, 1992.겨울.



文學 페미니즘 활발한 탐구

「여성학」시각서 女性작품 비평

性의 고정관념 家父長制모순등 해부

「여성小說選」등 발간 문학이론 구체화

徐正子씨 朴婉緖씨 趙惠貞씨

[그림 8] 1990년대 초반 여성문학에 관한 활발한 탐구를 소개한 『동아일보』 기사(1991.3.21.)

그때 여성문학 연구자 송명희 선생이 『한국여성소설선』 제1권을 봤다, 특히 뒤에 해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 연구 많이 한 거를 압축했기 때문에 글이 너무너무 좋다, 우리 이걸 바탕으로 무슨 모임을 하나 갖자고 제안했어요. 아쉽게도 모임은 진전이 없었고요. 그전에 제가 나혜석의 「경희」와 「회생한 손녀에

게」를 분석한 논문 「나혜석 연구」를 발표한 '한국여성문학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김남조 선생님이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시니까, 부산의 정영자, 김정자, 김보희, 송명희, 대전의 정순진, 서울의 제가 주가 되어 1988년에 만든 겁니다. '한국여성문학연구회'는 『여성과 문학』을 3집까지 내고 자연 와해 되었어요.

6 연구가 딛고 설 수 있는 기반-대학과 학회

질문 선생님께서는 1994년 2월 초당대학교에 부임하셨습니다. 주 생활 공간이셨던 서울에서도 상당히 먼 곳인데, 초당대 교양과에 부임하시게 된 동기나 배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사를 마치고 나니까 숙대 강의를 더 이상 맡기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50세가 넘어가니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지만 갈 데는 없고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준비한 것처럼 초당대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사실 주부가 지방대 교수하러 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계기가 딱 주어진 게 그때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1993년 9월 1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개교는 그 다음 해 1994년 2월이고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목포에 계셨던 시아버님을 모셔야 하는데, 서울로 모셔오니까는 조금 계시더니 답답하시다고 도로 목포로 가셔서, 아버님 혼자 계시게 됐죠. 핑계가 참 좋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도 모시고 집도 돌보고. 그랬는데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심야버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살림 다 준비해 놓고 심야버스를 타고, 이를테면 광주면 광주, 나주면 나주에 내려가서 거기에 세워둔 차를 운전해 가면 학교에 아침까지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양과 교수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제 생각은 뭐냐면, 돈벌이는 아니었어요. 더 이상 타이틀이 없으면,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숙명여대 강사'라는 타이틀이라도 있어야 논문을 발표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 요즘은 뭐, 국문학 연구자, 뭐 이렇게도 하고,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도 별 얘기가 다 많더군요. 이번에 탄핵 데모하는 거 보니까, 깃발에 연합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름이 많더라고……. 그러나 학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교에서도 박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나가줘야 시간을 줄 수가 있죠. 더구나 '교양 국어'도 자꾸 없어지는 판에. 그런 고민이 있을 땐데, 학교가 딱 생긴 거죠. 우리 시어머님이 또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가신 것 같은 착각도 들어요. 그래서 성묘를 갈 때마다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려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춤을 추셨어요. 덕분에 석·박사를 하면서 여성문학을 공부할 수가 있었죠.

그 후 김미현, 변신원, 이덕화, 이상진, 이호숙, 이분들이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46]이라고 하는 책도 냈어요. 이어서 현대편까지 발간하게 되었죠. 결국은 작가론이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히트를 했지요. 이즈음에 여성문학 연구가 굉장히 꽃을 피우게 됐고, 저는 저대로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러한 활동들이 동력이 되어 '한국여성문학학회' 창립논의가 되었나 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1998년 창립된 한국여성문학학회 외에도 세계한국어문학회, 나혜석학회, 박화성연구회 등 여러 학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성작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학회와 관련된 활동 중 무엇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답변 '한국여성문학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1998년에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서울의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어요. 또 제가 너무 많이 집을 비워 남편도 약간 피로가 쌓였고 해서, 학회 창립을 주장할 여력이 없었을뿐더러, 제게는 말하자면 동지가 없었어요. 항상 혼자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을 모아들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국여성문학학회'에도 저는 기여한 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1999년 9월 두 번째 학술대회에선가 기조연설을 부탁해 주셨어요. 첫 기조연설은 김윤식 교수님이 하셨고요. 여성문학 학자 중에서 첫 번으로 기조연설을 하게 해주신 게 고마워 첫 연구서를 낼 때 맨 앞에 발표 원고 「여성문학연구 어제, 오늘, 내일」[47]을 넣었습니다.

---

46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 한길사, 1995;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 한길사, 1997.

그리고 '나혜석학회', '세계한국어문학회' 또 '박화성연구회'가 있어요. '세계한국어문학회'는 숙대 국문과 동문 연구자들이 주가 되어 고전문학, 언어학, 그리고 현대문학을 나눠서 2008년 창립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회장을 맡았던 것인데, 두 차례인가 연임을 하고 회장을 물려주었는데, 이후 학회활동은 저절로 끝이 나게 됐어요. 학회지는 6집까지 냈고요. 세계한국어문학회 현대문학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 〈비평숲길〉 스터디 그룹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가끔 공저를 냅니다.

나혜석학회 회장을 제가 맡게 된 거는 나혜석 기념사업회와는 별도로 진행이 됐어요. 유동준 나혜석 기념사업회장의 업적은 대단한 바 있으시고요, 저로서는 나혜석 연구 논문을 계속 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수원시장(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상하는 나혜석 학술상을 제정, 공모해서 제가 제1회 최우수상 수상자가 되고, 최동호 교수님도 만나게 되었고요. 이때 이구열 선생님이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1974년에 이미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48]를 내신 연구자이신데 왜 내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은 미술평론가 이구열선생이 화가 나혜석에 초점을 두고 쓰신 까닭이 아닐까, 1981년 한국근대여류선집으로 나혜석[49], 김명순, 김일엽의 책이 나오는데 그때도 화가 나혜석에 초점을 둔 편이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경성 미술평론가와 권영민 문학평론가의 글이었지요. 연구자들이 노력했지만 화가 나혜석으로 평가하기에는 나혜석의 남은 그림이 너무나 영성(零星)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비해 나혜석의 소설 「경희」의 작품성이나 문학사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나혜석의 소설 「경희」 발굴은 그를 화가로서보다 소설가로 평가받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나혜석 학회가 출범하면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넉넉히 주셔서 참 많은 작업을 했어요. 첫째는 일본 방문입니다. 사립 여자미술학교(女子美術大学)에 방문하여 그의 학적을 확인했고, 졸업 앨범을 확보할 수 있었

47 서정자, 「기조연설 여성문학연구 어제, 오늘, 내일」,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48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 동화출판공사, 1974

49 김종욱 편, 『라혜석-날아간 청조』, 신흥출판사, 1981.

습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자료 없어 기록의 정확성이 의문스러운 것이었기에 나혜석의 학적과 앨범 확인은 대단한 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혜석의 글에 나오는 졸업 작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우리는 최승구가 재학했던 게이오(慶応)대학 미타(三田)캠퍼스에도 가서 그의 학적을 확인했고 그 학적에서 게이오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정칙(正則)영어학교에도 재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칙영어학교에도 가보았지요.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도 정칙영어학교에 재학했었지요. 옛 학지광사 자리도 가보았고 청탑사가 있던 곳도 가보았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스캇홀(Scott Hall)도 들렀습니다.

사립 여자미술학교가 있는 도쿄 외에도 나혜석의 편지가 소장 되어 있는 오사카의 모모야마학원(桃山学院) 야나기하라 기쓰베(柳原吉兵衛) 사료실에 가서 나혜석 친필의 편지를 찾아봤고요. 한국에서는 나혜석이 그려 전시한 수백 점의 그림 중 온전한 그림이 몇 점 남아있지 않은 현실인데, 이 사료실에는 나혜석의 편지가 잘 보관되어 있었어요. 나혜석이 1926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무감사 특선한 그림 〈천후궁〉을 야나기하라 기쓰베가 사서 만든 그 엽서도 있었습니다. 안동 부영사 김우영을 의식한 호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토로 가서 교토대학을 방문했고 김우영을 찾아 기숙사에 왔던 나혜석을 생각하며 지엔료(地鹽寮 이 땅의 소금이 되라는 뜻)기숙사도 방문했습니다. 사카이시(堺市)의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문예관, 그리고 만주·하얼빈·심양·장춘·대련·단동, 하여튼 나혜석이 간 데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흑백으로 된 그림(선전도록)의 대상인 천후궁, 낭랑묘, 봉황성의 남문, 일본 영사관 등을 찾아 확인했을 뿐, 나혜석의 미술에 대하여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탐방자료는 나혜석학회 저널『나혜석 연구』창간호부터 제9호까지에 실려 있습니다. 사학자, 미술평론가, 문학연구자 등이 동행했기에 탐방기가 다양하게 쓰이고 실렸습니다. 이 탐방 결과가 개정증보『원본 나혜석 전집』(2013)에 새로 발굴한 글과 함께 화보로 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새로 발굴한 자료를 비롯해, 일본 나혜석 연구자의 논문도 많이 실린『나혜석 연구』의 활용이 최근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나혜석 연구 결과물의 의의라면 나혜석을 스캔들의 주인공에서 '실물대'의 인간으로 재생(再生)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인데, 기념사업회나 학회 모두 요즈음 활동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7 필요하면 하는 것-여성작가 전집 발간

질문 정년 즈음, 다시 여성작가 원본전집 자료집 발간에 힘쓰신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듯합니다. 전집 발간 과정과 발간의 의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계산할 줄 모르고,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정년이라고 해도 기념논문집 같은 것을 낼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교양과 교수는 제자가 없기도 하죠), 그보다 계속 연구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방에 있는 연구자라 잊히기 딱 좋았는데, 나혜석기념사업회에서 저를 찾아 불러주셔서, 어떤 의미에서 살아난 거죠. 『원본 정월 라혜석 전집』[50]의 경우는 나혜석기념사업회의 주도로 발간되었는데, 그 작업을 해보니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박화성문학전집』을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추진했습니다.

출판 비용을 좀 모아 봐야겠다, 요즘으로 하면 펀딩을 시도해서 책을 내면 좋겠다고 하고, 목포 유지라고 할까 유명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전집을 한번 내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마침 나혜석 전집을 낸 국학자료원에서 독립해, 출판사 '푸른사상'을 창립한 한봉숙 사장을 찾아가 "박화성 문학전집을 만들고 싶은데 얼마나 모아 올까요?" 그랬더니, "제가 내드리죠" 해서 책이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박화성문학전집』[51], 『지하련 전집』[52], 『원본 나혜석 전집』[53], 『김명순 문학전집』[54]을 냈죠. 범우사에서 『강경애 선집 인간문제』를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박화성문학전집』을 내기 전에 박화성의 장편소설 『북국의 여명』을 먼저

50 서정자 편, 『원본 정월 라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51 서정자 편, 『박화성 문학전집』 전20권, 푸른사상, 2004.
52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푸른사상, 2004(개정증보판 2023).
53 서정자 편, 『원본 나혜석 전집』, 푸른사상, 2013.
54 서정자·남은혜 편, 『김명순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냈습니다. 다른 작품은 기간(旣刊)의 작품을 모아 실으면 되는데 『북국의 여명』은 중앙일보 연재 이후 책이 나온 적이 없었고, 박화성 선생이 신문 스크랩을 잃어버렸다고 한탄을 하신 작품이었거든요. 박사논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복사물로 줄거리만 소개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손에 넣은 복사물은 깨알처럼 작은 글자의 축소판 복사물이었습니다. 그걸 푸른사상사에서 한자씩 입력하여 만든 책이 『북국의 여명』[55]입니다. 정말 힘들게 만든 책이에요. 교정을 본 저도 고생했는데 이 책은 단권이라 요즘도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작이거든요.

『박화성문학전집』이 계기가 되어 야마다 요시코(山田佳子) 선생을 만나게 돼서, 저로서는 공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핑계로 '박화성연구회'가 생긴 것이 무한 감사했지요. 금년이면 학술대회가 제19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쓴 글들을, 아직 미간행된 발표문들을 뒤져서 읽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글도 있고 그런대로 쓸 만한 글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는 고쳐 쓰면 되니까, 그렇게 연구할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어서, 박화성연구회가 있어서 참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저의 부족한 학문의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박화성 탄생 100주년이 돼서, 유족 측에서 섭외하여 2004년(실제 출생연도는 1903년이지만 1904년으로 알려져 왔음) 소설가협회(회장 정연희 작가)에서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임헌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논문발표를 했고, 또 목포에 내려가서 『박화성문학전집』 발간 증정식도 했습니다. 증정식을 하는데 차범석 선생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던 게 잊히지 않습니다. 차범석 선생님께서는 박화성 선생님에게 은혜를 조금 입긴 하셨어요. 서울로 올라오는데 취직부터 길을 열어 주셨고, 문단에서도 아무래도 도움이 되셨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선은 박화성의 문학 정신을 차범석 선생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차범석 문학전집』 열두 권을 또 받아놨어, 차범석 선생님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쓰고 싶어서……. 제가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웃음)

전집 얘기를 더하자면, 지하련 같은 경우는 제가 지하련을 좋아해서 그런지

55 서정자 편, 『북국의 여명』, 푸른사상사, 2003.

더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고, 지하련 전집을 내게 된 계기는 아마 서문에 썼을 거예요. 최정희 선생님 인터뷰를 할 때, 선생님 옆에 나지막한 책장이 하나 있었어. 근데 보니까 뭐 『풍류(風流) 잡히는 마을』[56]도 있고요. 다 갖고 싶은 책이지만 유독 지하련의 『도정』[57]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책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빌려 가라고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제게 『정적기(靜寂記)』를 보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인터뷰 내내 앉아계셨는데, 다리가 안 좋으셨던 걸 몰랐어요.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1990년 12월) 돌아가셨는데, 정릉 선생님 댁 아파트 앞뜰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날 뵈었던 정한모 선생님이 바로 두 달 후(1991년 2월) 돌아가셔서 모두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하련 전집 이야기로 돌아가서, 원전하고 대조하는 게 또 제 방식인데요. 원고를 바꿔서 당신이 쓰고 싶은 문장으로 바꿔서 그 책을 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한국어의 그 아름다움을 얼마나 잘 살렸는지. 지하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더 좋았어요. 후회되는 것은 박사논문을 심사하실 때, 김남조 선생님께서 "지하련이 참 미인이다, 미인이었다" 그러셨는데, "선생님 지하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해야 했는데, 못한 것이 너무 한입니다. 선생님께서 마산에서 교사를 하셨잖아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도 바보죠.

8 여성문학 연구 되돌아보기 1-김말봉과 지하련

질문 선생님께서는 여성작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오셨는데 특히 김말봉과 지하련의 연구는 기존 연구사와 다른 방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작가의 문학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느 작가가 제일 좋은지도 물으셨죠? 박화성 선생님이 재능과 끈기가 대단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김말봉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매력이 있어요. 제가 지

56 최정희, 『풍류 잡히는 마을』, 아문각, 1949.
57 지하련, 『도정』, 백양당, 1948.

난 번에 반전(反戰) 소설 시각으로 김말봉을 연구한 논문[58]을 발표하고도 내가 제대로 본 건가, 자꾸 생각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김말봉, 이분은 도식적인 방법으로 대중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이분은 독서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크로포트킨이나 뭐 이런 아나키즘이 소설에서 깊이 다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창 폐지' 또는 『찔레꽃』[59]의 월트 휘트먼 같은 것 또는 바르뷔스의 반전(反戰) 소설의 영향 같은 것이 거의 반드시 삽입되어 있어요. 제가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60]을 반전 소설로 본 것도 발표 후 계속해서 반성을 해보면 잘못 보지 않았다. 맞다,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을 소설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연애소설이고, 그냥 대중소설이고, 통속 소설같이 보여요. 근데 김말봉 선생은 처음부터 "내 소설, 내 속에서, 내가, 독자가 꼭 읽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10년이 지나서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보아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이렇게 『밀림』[61]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계속 섣불리 어떤 이론으로 꿰어 보기에는 한마디로 무시할 수 없는 진지한 질문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번에 쓰려는 논문도 만만치가 않게 생겼습니다. 되돌아보니 공창 폐지 운동도 아나키즘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증주의 작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김말봉의 문학은 보다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순의 번역과 서양문학의 영향 관계를 보기 위해 서양문학 이입사 연구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김말봉의 독서 체험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면 쓸수록 애정이 가는 게 김말봉이고, 작품을 처음 읽고 너무나 애정이 갔던 작가가 지하련인데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지하련이 지적인 작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소설에 어떤 진보적 의식을 전면에 드러내는 소설을 쓰지 않는 대신에, 이를 고민하는 냉철한 의식의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

58 서정자,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 (완본) 연구-한국전쟁과 반전(反戰)소설 구조, 그리고 '별'과 '광명'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제6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59 김말봉, 「찔레꽃」, 『조선일보』 연재, 1937.3.31.~10.3; 김말봉, 『찔레꽃』, 문연사, 1955.

60 김말봉, 『별들의 고향』, 정음사, 1953.

61 김말봉, 「밀림」, 『동아일보』, 1935.9.26.~1938.12.25.

까?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서정자가 왜 「도정」을 손을 안 댔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던데. 자료는 다 찾아 전집에 실어놓고 저는 「도정」[62]에 관한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방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이거를 끌고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손을 안 댔어요. 또 「도정」이라는 시를 쓴 일본 시인이 있습니다. 다카무라 고타로(高村光太郎)라는 유명한 시인인데 그 시를 보고 나서 생각해 보자 하고 있죠. 좋아하는 작가라면 결국 현재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작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구하는 그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9 여성문학 연구 되돌아보기 2-실증적인 연구

질문 그간 자료 발굴, 연보 정리, 선집 발간 등 선생님께서는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기초를 닦아오셨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문학 연구에서 '작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요즘은, 서구 이론을 방법론 삼아 작품을 분석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실증적인 작가 연구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실증주의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전에 어느 선생님께 임옥인 선생이 이혼 후 재혼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임옥인 선생은 『나의 이력서』[63]에 일절 그런 얘기를 안 쓰셨어요. 생각해 보면 그분이 맨발로 뛰쳐나와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글이 있긴 있어요. 그 장면만 가지고 그것을 이혼이라고 볼 수도 없고 좀 애매해요. 이렇게 작가의 역사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으니까, 「후처기」[64], 「전처기」[65]를 왜 썼는지

62 지하련, 「도정」, 『문학』, 1946.
63 임옥인, 『나의 이력서』, 정우사, 1985.
64 임옥인, 「후처기」, 『문장』, 1940.
65 임옥인, 「전처기」, 『문장』, 1941.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정성의 문제를 다룰 때 『일상의 모험』[66] 밖에 거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혼이라는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후처기」, 「전처기」를 포함하여 분석했을 것입니다.

'문학의 집, 서울'에서 제가 임옥인 작가연구를 발표할 때인데 김홍신 작가가 평소 어머니처럼 여겼던 임옥인 작가에게 문학상 제정을 건의했다고 해요. 자녀도 없고 하니 상을 제정해서 임옥인 작가의 공적을 길이 빛내려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임옥인 선생이 끝까지 반대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아 문학상 제정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증언을 가끔 생각합니다. 임옥인 선생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이시죠. 신앙과 관련이 있을 듯도 하고 방기환 선생과의 결혼과도 관계가 있을 듯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작가론을 쓸 수 있으려면 사생활뿐만 아니라 독서까지 작가의 모든 것에 대해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을 해야 해요.

질문 선생님께서 편찬하신 작가의 자료집에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상세하게 작성된 '작가연보'가 수록되어 있어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작가연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연구하셨는지, 그 중 기억에 남는 점을 여쭤봅니다.

답변 김말봉 연구를 시작할 때인데 김말봉이 목포와 관련이 있다는 자료로 목포에서 근우회 창립 등의 신문 기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있을 때 첫 남편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김말봉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서 박노석 시인을 만났어요. 정하은 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67]에 박노석 시인이 김말봉에 대해 한 증언이 실려 있거든요. 시인협회인가 하여간 여기저기 물어서 겨우 연결이 되어 부산으로 갔죠. 김항명의 김말봉 전기를 보면[68] 첫 남편이 목포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동래의 시장에서 만나 인터뷰를 했

66 임옥인, 「일상의 모험」, 『현대문학』, 1968.1.~1969.4.
67 박노석, 「끝뫼 아주머니와 나」, 정하은 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68 김항명, 『찔레꽃 피는 언덕, 김말봉』, 명서원, 1978.

는데 여러 사실을 알려주기는 했으나 역시 속 시원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 차범석 선생님이 저희 초당대학에 오셔서 인사를 드린 김에 김말봉에 대해 여쭈어봤죠. 그랬더니 시원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댁의 가계(家系)에서부터 사시던 집의 위치까지. 그야말로 김말봉이 목포에 사셨던 사실이 분명해지고 부군의 성함까지도 알게 됐죠. 후일 호적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고요. 이혼의 이유, 전상범과의 결혼, 그리고 이종하와의 결혼 등 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중 하나의 목표였던 「시집사리」[69]가 김말봉의 작품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님 이정순, 이정옥 두 분의 인터뷰도 도움이 되었고요. 김말봉이 목포에서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체험이 있었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것이 김말봉의 연보입니다. 물론 참고 자료도 끊임없이 모았고요.

또 한 가지, 김말봉의 경우 해외에 세 차례 다녀오는데, 1952년 9월에 베니스에서 열린 세계예술가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고 귀국해요. 다녀온 좌담회가 잡지에 실렸기 때문에 미국에 가지 않은 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귀국길에 미국에 들렀다고 쓴 글을 봤던 것처럼, 연구자에게 정확성,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10 여성문학 연구 되돌아보기 3-시대적인 연구

질문 선생님께서 김명순과 그 작품에 대한 악의적 비평을 "미디어 테러"로 지칭하고 재독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은 당시 김명순이 처해 있던 맥락을 넓게 연구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는 연구자에게 연구 대상이 놓인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대성을 고려한 연구의 의미에 대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남은혜 선생님하고 이번에 보완해서 『김명순 문학전집』 개정판을 준비하

69 김말봉, 「시집사리」, 『동아일보』, 1925.4.18.~4.24.

면서 김명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혜석도 재평가를 해야 되고요. 「모(母)된 감상기」는 유명한 글인데요.[70] 최근에 이 글을 읽고 새삼 감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아들 낳으면 왜 좋아하는가. 그 이유는 남아선호가 하나의 관념으로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낳으면 보탬이 되고 딸을 낳으면 손해니까 딸 낳으면 싫어한다는 거.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다, 계산적이다.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딸인 거를 모르고, 나도 아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막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여자를 공부해서 여자가 됐는데, 다시 되짚어 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 맞는 얘기야. 그러한 당신의 체험을 나혜석처럼 솔직하게 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혜석은 여성문학으로나 여성학으로나 보물이에요. 재평가되어야 해요.

김일엽의 『신여자』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거[71]를 다시 보니까 좀 잘못 쓴 데가 있어요. 『신여자』 거기에 '개조'가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 개조를 해야된다라고 김일엽이 주장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언급을 못했어요. 김일엽이 방정환, 남편 이노익 등 남자들 사이에 끼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낸 거예요. 거기서 김일엽의 목소리를 추려내야 됩니다. 시대를, 세계적 조류를 반드시 감안해서 비춰보아야 해요. 김일엽도 연구와 작업을 해서 제대로 선배의 그 기개를 이어받아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흘러간 여인상』[72]을 쓴 이명온씨는 기자 출신으로 글을 잘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 이 세 선배를 이해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건 역시 시대적 한계로 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교적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는 나혜석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글을 써서는 안 되고, 자료를 가지고 써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온 『흘

70 나혜석, 「모(母)된 감상기」, 『동명』, 1923.

71 서정자, 「일엽 김원주·『신여자』·그의 사상 다시 읽기」, 『나혜석연구』 제2호, 나혜석연구회, 2013.

72 이명온, 『흘러간 여인상』, 인간사, 1956.

러간 성좌』[73]라고, 박노준 씨랑 쓴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게 여성작가에 대해 가혹하게 쓰신 셈이 됐어요. 그러니 우리 여성 연구자들은 자료를 다시 보면서 나혜석을 평가해야 됩니다. 나혜석은 자신의 사상에 온 몸을 던졌어요. 자기 온 몸을 던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참, 『인형의 집』[74]에 실린 나혜석의 시 「노라」에서 그런 것처럼 "소녀들아 뒤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따른 거야. 아무도 안 따르고 욕만 한 거죠.

우리가 문인으로서, 또 학자로서 나혜석 선생님 뒤를 좇을 수 있는, 행동으로 못하면 글이라도 써야 하지 않나. 또 김명순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번역 문학에 김명순이 끼친 영향도 크고, 내가 이번에 쓰려고 하는 그 김말봉 논문에 인용할 만한 것도 김명순 글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명순의 시·소설 전부, 다시 읽어야겠어요. 김명순은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 작품에 등장하는 외국문인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확인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와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자연히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되죠.

11 마이너 연구자 의식, 지금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까닭

질문 선생님께서는 사적인 자리에서 스스로를 '마이너' 연구자로 칭하시기도 하는 대범한 자의식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절대로 '마이너'가 아니시고, 지금도 하루 종일 읽고 쓰는 현역 학자라는 점에서 이 표현은 때로 듣기에 민망한 겸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마도 선생님 자신이 이른바 '스카이' 출신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어서 살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연구에 온종일 몰두할 수 없었던 현실, 지방대학의 교양대 교수라는 위치, 근대문학의 정전과 동일시되는 남성작가가 아니라 여성작가들을 연구해온 것 등을 염두에 둔 말씀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이너' 자의식 혹은 정체성

73 박노준·임종국, 『흘러간 성좌』, 국제문화사, 1966.

74 헨릭 입센, 양건식 역, 『인형의 집』, 영창서관, 1922.

이야말로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깨어 있도록 만들어 온 동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여쭙니다.

답변 여성작가 또는 여성문학을 연구하기에 주류학자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기보다 문학연구의 방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작가와 전체 작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자료만 놓고 새 이론으로 논단하는 일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 그 흐름을 좇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늘 돌아보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문학 연구자들도 소위 제가 문화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저의 연구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느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성 또 반성도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 들인 엄청난 노고를 생각하며 그런 모든 생각을 털어내고 작가와 작품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작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저는 잃어버린 아들 아이를 너무나 이뻐해서 아이를 잃고 어떻게 반성했느냐면, 아이들에게 너무 관심을 갖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알아서 크고 알아서 공부해라 했지요. 한 번은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 말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해요.(웃음) 다행히 각자 알아서 잘 커 주어, 제가 공부하는데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고통은 긴 순간이라고, 어쩌면 다 잊어버려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숙대신보사에 들어갔는데, 선배 기자들이 앉아 있고 편집국장도 있고 그랬는데, 전임기자(졸업생기자)가 저를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전라도 개땅쇠가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땅쇠’가 뭔가 했더니, ‘뻘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호남 차별이죠. 그때부터 호남 차별이 늘 제 옆에 있어요. 서울에서 살 때, 한 번도 전라도라고 하는 출신을 잊지 않게 잘 일깨워 주더라고. 그건 억울하지만, 그것이 제게 마이너 의식을 갖게 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외국어를 못하면 쫄아야 하는 사회적 관습이 저를 마이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여성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여성을 배우면서 살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여성으로 봐요. 여성은 항상 주가 아니고 부죠. 그런 것이 뼈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도 여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거죠. 남자 교수들과 당당히 대화하는 여성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질문 선생님께서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까다로운 투고 절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술지에 논문을 내고 심사 과정을 거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학회지에다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마감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3월 15일이 책이 나온다 그러면 늦어도 1월 말에는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해서 맞춰야 된다 해야 일이 되지. 가만 놔두면 게을러서 한도 끝도 없이 미루거든요. 마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둘째는 알아야 면장을 하죠. 공부를 한다는 거는 혼자 하는 거지만,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사를 맡기면 후배들한테 많이 배우게 돼요. 나는 내가 잘못 본 거를 지적해 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래서 심사 결과를 받아보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즐기면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것, 듣고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문학의 집, 서울'에서도 권철근, 김구슬, 방민호 등 여러 교수의 강의를 다 들었어요. 제가 읽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교수님들에게서 듣고 배워보려는 거죠. 제가 오면 불편하시겠죠, 늙어 갖고.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고 조흔파 선생님의 『얄개전』에서 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배운 말인데, 나는 어디서든지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틀리지 않는 정직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12 다시 살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대화를 마치며

질문 앞으로 선생님의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뉴스를 들으며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잊지 말자 하고 수첩에 적어두었는데 이 나이에 어쩌자는 것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얼마 전 청나라의 학자 유월(兪樾)이라는 사람이, 일흔 살이 다 되어

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고 치학 방법도 틀렸음을 깨닫고 다시 학문에 전념하여 훗날 경학, 제자학, 사학, 훈고학, 희곡, 시사, 소설, 서예에 두루 능통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는데[75],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저의 공부를 다시 살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새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마무리 긴 시간 동안 서정자 선생님, 그리고 인터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서정자 선생님 말씀 중에서 "나는 공부를 해서 여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삶과 공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 작은 인연들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다 공부로 끌고 가셨던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공부에 대한 사랑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더욱 건강하셔서 후배 연구자들의 눈을 틔워줄 글을 오래오래 쓰시기 바랍니다.

75 이지운, 『시절한시』, 유노라이프, 2024, 32~33.